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6 pp. 2653-2659, 2013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653

동양학에서 명리학과 육효학의 환경변화도 예측 분석연구

이옥화[1*], 조성제[2]
[1]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2]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Environment variability predictive analysis of Myeongri Study and Yookhyo Study in Oriental studies

Ock Hwa Lee[1*] and Sung-Je Cho[2]
[1]**Division of Culture Information,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2]**Department of Education,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요 약 기존의 환경변화 예측연구에서는 동양학을 적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였다. 특히 명리학만 적용하여 환경변화 예측을 연구하였다. 이 두 학문을 적용하여 환경변화 예측연구를 하여온 경우는 없다. 그래서 본 연구는 명리학과 육효학을 적용하여 환경변화 예측의 정확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두 학문을 분리해서 하는 경우 보다는 동시에 같이 했을 때 환경변화 예측이 더 정확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높았다. 환경변화도의 영역별은 평균이 높을수록 좋은 결과가 유사한 차이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변화도에 대한 예측의 효율성이 증대하였음을 판단된다.

Abstract Most of the previous environment change predictive studies had applied Oriental studies. Only Myeongri study were especially applied in studying environment change prediction. When these two studies are applied separately in analysis, accurate predictive analysis is insuffici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accurateness of environment change prediction by applying Myeongri study and Yookhyo study. Research methods, August to December 2012 were surveyed workers. In the analyzed result, environment change prediction is more accurate when the two studies are done together compared to separating them.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rela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ere high. Good results followed as the mean was higher by similar difference in each part of environment variability. Therefore the efficiency of prediction for environment variability seems to have increased.

Key Words : Oriental studies, Myeongri study, Yookhyo study, Environment change, Predic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급격한 환경변화적 요인으로 자연과 인간의 존재양식은 환경에 더욱 적응하게 된다. 또한 인간과 밀접한 자연환경 변화를 알기 위하여 동양학을 연구하고, 특히 명리학과 육효학에 대한 환경변화 예측분야에 많이 적용하였다[1-8].

명리학에서는 60갑자의 간지는 황제가 신하인 대효에 명하여 최초로 만들었으며,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자연계의 변화규율을 전개하여 오운육기에 결합하였고[1], 천문·역법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서 음양오행론이 천문체계로부터 생성된 이론이며 미래가 명과 운의 문자적 도구가 되었다[2]. 오행에 대한 운기학이 오운과 육기별로 질병이 나타나고[3], 용신 도출 방법론은 격국론보다도 중화점에 핵심이론이 된다[4].

육효학에서는 한 대의 경방이 주장한 납갑설은 괘의 효에 오행을 붙이는 방법이 천간은 납갑, 지지는 납지가

*Corresponding Author : Ock Hwa Lee(Dongbang Graduate Univ.)
Tel: +82-10-3813-9861 email: altlee2@hanmail.net
Received March 27, 2013 Revised (1st April 17, 2013, 2nd May 8, 2013) Accepted June 7, 2013

된다[5]. 원전『복서정종』에서「황금책·천금부」의 원형은 소강절의 섭렵부에서 절반은 유백온이 보충한 것이며, 십팔문답이 있다[6]. 육효점과 토정비결은 서로 결합되는 상관성이 있고[7], 문왕서법의 괘상과 경방서법의 괘효사를 중심으로 오행의 생극제화를 통해 길흉을 따지는 방법이다[8].

명리학은 이미 출생한 개인의 생년·생월·생일·생시를 기준하여 운의 흐름을 절기의 변화에 대조하고 음양오행을 문자 60갑자로 표현하여 삶에 특성을 분석하였다[9]. 육효학은 절기의 변화를 8괘에서 생성되는 64괘는 여섯 효에 음양오행의 문자 60갑자로 표현하여 괘효에 적용시켜 상생상승관계를 살펴 길흉을 점후하였다[10].

연구의 필요성은 기존에 환경변화 예측에 관한 연구에서 명리학은 육효학과 분리하여 명리학만 적용하였고, 육효학을 명리학에 적용한 연구는 없다. 명리학만 환경변화 예측을 하였을 때 예측의 목적이 되는 부귀빈천과 길흉화복은 기운이 오르고 내리는 기복의 변화차이를 관찰함에 있어, 길하다와 흉하다로 결과를 단정하였다. 환경기운의 변화기복은 초·중·말기의 세분된 단계가 있고, 이러한 과정을 분류하지 않으면 결과에서 혼란만 야기된다. 결과로 이어주는 과정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명리학과 육효학을 같이 적용하여 심도 있는 환경변화도를 예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기존의 관련된 문헌과 고전들은 한문방식이므로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이 대다수 이론체계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명리학과 육효학에서 공통된 육친이 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 관계명칭을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하 육친이라 한다)이고, 육친을 중심으로 정확한 환경변화 예측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용어 정의

육친 : 주인이 되는 나를 기준하여 명리학은 음양적용에서 열 개가 되고, 육효학은 오행적용에서 다섯 개의 육친이 있다.

비겁(비견, 겁재) : 나와 같은 관계
식상(식신, 상관) : 내가 생하는 관계
재성(정재, 편재) : 내가 극하는 관계
관성(정관, 편관) : 나를 극하는 관계
인성(정인, 편인) : 나를 생하는 관계

2. 이론적 배경

명리학에 관련된 연구는 인식수준에 대해서 언급하였다[11]. 적성과 제반 능력의 한계가 음 양으로 존재된다[2]. 대학교의 전공선택은 격국, 용신과 일치하는지를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연구하였는데, 용신의 중요성에 대해 제한적이다[12]. 격국, 용신의 용도와 방식이 다변하는 과거와 다르게 현대사회구조에서 직업은 파격이 많고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데 변용된 진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유형을 분류하고, 직종과 직무에 개인적 적성과 정신적 신체적 체질에 맞추어 능률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명리직업선천성을 연구하였다[13]. 명리직업후천성에 의한 직업은 변화하는 운에 의존하면 직업은 자기효능과 위험감수의 차이가 적어진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육효학에서는 본래의 점서보다 점사에의 사상적 해석의 편중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방의 괘기역학의 '세응여귀설'에서 영향을 받았고 팔궁괘에 대한 세효는 1괘의 주인이 되며, 점을 할 때, 점을 치는 사람을 대표한다[14]. 문왕서법의 괘상과 경방서법의 괘효사를 점술과 실점의 사례를 분석하여 원리와 사상을 전개하였다[8]. 세응의 용은 점을 치는 자와 묻는 자와의 대립성이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두 학문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같이 적용하여 정확한 환경변화 예측분석을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반직장인 기혼자를 대상으로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명리학과 육효학에 적용하고, 그 시기를 검정하여 환경변화 예측에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3.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K구 N동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내방자의 상대로 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다. 표본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검정력 분석 프로그램 G*Power 3.1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를 0.35로 가정하고, power 0.7로 산출하여 연구대상자는 100명으로 실시하였다.

3.3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대학교진학률 조사[12]와 직업유형에 능률과 효율성을 측정[13]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환경변화 예측을 육친관계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통계의 일반적 특성 3문항과 육친의 20문항에 대한 5단계로 구성하였다. 비겁은 설문조사의 총 20문항 중에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내용은 친구, 동료, 친인척, 사회생활 인간관계로 구성하였다.

비겁은 설문조사 20문항 중에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내용은 수하인, 여자는 자식과 관계로 구성하였다.

재성은 설문조사 총 20문항에 3문항으로 구성하고, 내용은 재물, 남자는 처, 여자는 남편의 가족과 관계로 구성하였다.

관성은 설문조사 총 20문항에 5문항으로 구성하고, 내용은 직장, 승진, 남자는 자식과 여자는 남편 그리고 일의 능률관계로 구성하였다.

인성은 설문조사 총 20문항에 5문항으로 구성하고, 내용은 문서, 학업, 부모, 상사, 재산의 상속·증여관계로 구성하였다.

3.4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료는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 과정을 거쳤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육친적 관계에 대한 각 문항의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상관성 등을 문항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의 계수로 판단하였다.

셋째. 육친적 관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분석

일반적 특성 결과는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requency	%
gender	man	62	62.0
	woman	38	38.0
age	30	16	16.0
	40	21	21.0
	50	40	40.0
	60	23	23.0
whole		100	100.0

성별은 '남자' 62.0%, '여자' 38.0%이었으며, 연령은 '50대' 40.0%, '60대' 23.0%, '40대' 21.0%, '30대' 16.0% 순으로 나타났다.

명리학과 육효학의 육친적 관계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2와 같다.

육친적 관계의 척도는 5점 만점으로, '전혀 안 좋다' 1점, '안 좋다' 2점, '보통이다' 3점, '좋다' 4점, '매우 좋다' 5점으로 평균이 높을수록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육친적 관계의 '공부의 정도'의 평균은 3.97로 관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승진의 관계'(M=3.91), '직장의 관계'(M=3.90), '재물의 왕래'(M=3.89), '문서취득 관계'(M=3.77), '일의 능률'(M=3.19),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M=3.08), '동료와 관계'(M=3.04), '수하인과 관계'(M=3.03), '상사와 관계'(M=3.01), '친인척의 관계'(M=2.95), '자식과 관계'(M=2.93), '재산의 상속·증여관계'(M=2.79), '부모와 관계'(M=2.74), '친구와 관계'(M=2.72), '형제와 관계'(M=2.67), '배우자와 관계'(M=2.33), '시댁과 관계'(M=2.22) 순으로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arental relation of Myeongri study and Yookhyo study

	mean	standard deviation
Brothers' relationship	2.67	.93
Friend 〃	2.72	.84
Colleague 〃	3.04	.68
Relative 〃	2.95	.95
Consignee 〃	3.03	.66
Child 〃	2.93	1.05
Wealth correspondence	3.89	.72
Husbandfamily 〃	2.22	.87
Spouse 〃	2.33	.97
Workplace 〃	3.90	.98
Promotion 〃	3.91	.98
Of work efficiency	3.19	.73
Studying the degree of	3.97	.72
Document acquisition	3.77	.86
With supervisor	3.01	.60
Parents and relationship	2.74	.89
Inheritance of property donation 〃	2.79	1.09
Of social life 〃	3.08	.84

첫째. 성별에 따른 명리학과 육효학의 육친적 관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친구와 관계'와 '공부의 정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외 항목들은 유의수준 5%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친구와 관계’는 남자의 평균은 2.52, 여자의 평균은 3.05로 여자의 친구와의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t=-3.238, p<.01).

‘공부의 정도’는 남자의 평균은 4.08, 여자의 평균은 3.79로 남자의 공부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001, p<.05).

[Table 3] Difference of parental relation of Myeongri study and Yookhyo study according to gender

	man (N=62)		woman (N=38)		t	p	Cohen ’s d
	Mean	SD	Mean	SD			
Brother	2.56	.93	2.84	.92	-1.453	.149	.30
Friend	2.52	.80	3.05	.80	-3.238**	.002	.66
Colleague	3.02	.67	3.08	.71	-.446	.656	.08
Relative	2.94	.96	2.97	.94	-.195	.846	.03
Consignee	3.05	.61	3.00	.74	.355	.723	.07
Child	2.97	1.02	2.87	1.12	.408	.685	.09
Wealth correspondence	3.84	.77	3.97	.64	-.948	.346	.18
Husbandfamily	-	-	2.22	.87	-	-	
Spouse	2.29	.91	2.41	1.07	-.554	.581	.12
Workplace	3.85	1.05	3.97	.85	-.587	.559	.12
Promotion	3.94	.99	3.87	.96	.332	.740	.07
Of work efficiency	3.18	.80	3.21	.62	-.218	.828	.04
Studying the degree of	4.08	.68	3.79	.74	2.001*	.048	.40
Document acquisition	3.74	.87	3.82	.87	-.414	.680	.09
With supervisor	3.00	.61	3.03	.59	-.212	.833	.04
Parents	2.69	.84	2.82	.98	-.661	.510	.14
Inheritance of property donation	2.71	1.01	2.92	1.19	-.945	.347	.19
Of social life	3.05	.80	3.13	.91	-.481	.632	.09

* p<.05, ** p<.01

둘째. 연령에 따른 명리학과 육효학의 육친적 관계 차이는 Table 4와 같다.

‘형제와 관계’와 ‘친구와 관계’, ‘동료와 관계’, ‘친인척의 관계’, ‘부모와 관계’, ‘재산의 상속·증여관계’,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항목들은 유의수준 5%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형제와 관계’는 40대 이하(M=3.08), 60대(M=2.43), 50대(M=2.42) 순으로 40대 이하의 관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F=6.319,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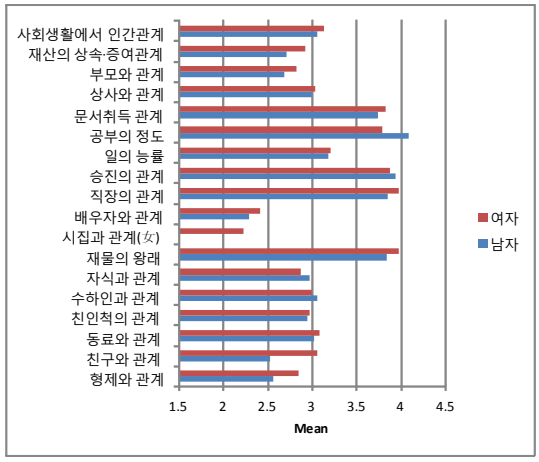
‘친구와 관계’는 40대 이하(M=3.14), 50대(M=2.50), 60대(M=2.43) 순으로 40대 이하의 관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F=8.235, p<.001).

‘동료와 관계’는 40대 이하(M=3.27), 50대(M=2.98), 60대(M=2.78) 순으로 40대 이하의 관계가 가장 좋으며, 60대의 관계가 가장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F=4.202, p<.05).

‘친인척의 관계’는 40대 이하(M=3.27), 50대(M=2.83), 60대(M=2.65) 순으로 40대 이하의 관계가 가장 좋으며, 60대의 관계가 가장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F=3.808, p<.05).

‘부모와 관계’는 40대 이하(M=3.19), 50대(M=2.63), 60대(M=2.22) 순으로 40대 이하의 관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F=10.658, p<.001).

‘재산의 상속·증여관계’는 60대(M=3.22), 40대 이하(M=2.89), 50대(M=2.45) 순으로 60대의 관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F=4.160, p<.05)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는 40대 이하(M=3.35), 50대(M=3.03), 60대(M=2.74) 순으로 40대 이하의 관계가 가장 좋으며, 60대의 관계가 가장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F=4.192,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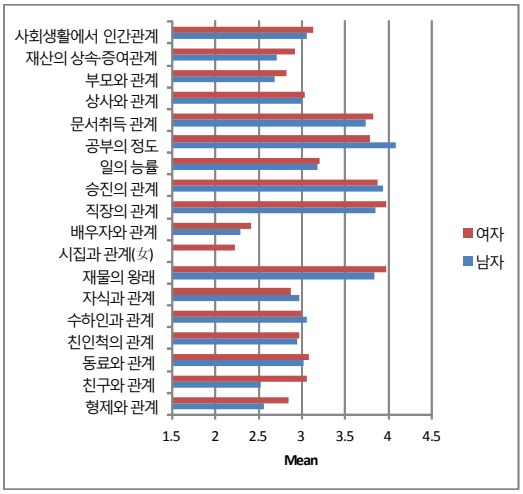
[Fig. 1] Difference of parental relation of Myeongri study and Yookhyo study according to gender

[Table 4] Difference of parental relation of Myeongri study and Yookhyo study according to age

	40 (N=37)		50 (N=40)		60 (N=23)		F	p
	Mean	SD	Mean	SD	Mean	SD		
Brother	3.08 a	.89	2.42 b	.78	2.43 b	1.04	6.319**	.003
Friend	3.14 a	.71	2.50 b	.60	2.43 b	1.12	8.235***	.000

Colleague	3.27 a	.69	2.98 ab	.48	2.78 b	.85	4.202 *	.018
Relative	3.27 a	.73	2.83 ab	.87	2.65 b	1.23	3.808 *	.026
Consignee	3.22	.48	2.98	.66	2.83	.83	2.823	.064
Child	3.18	1.00	2.82	1.00	2.71	1.21	1.563	.215
Wealth correspondence	3.95	.78	3.78	.66	4.00	.74	.880	.418
Husband family	2.33	.84	2.22	.97	1.80	.84	.722	.494
Spouse	2.43	.95	2.38	.99	2.00	.94	1.241	.294
Workplace	3.78	.89	3.98	1.12	3.96	.88	.411	.664
Promotion	3.70	.85	4.03	1.07	4.04	.98	1.338	.267
Of work efficiency	3.19	.62	3.33	.76	2.96	.82	1.871	.160
Studying the degree of	4.11	.66	3.98	.77	3.74	.69	1.914	.153
Document acquisition	3.73	.96	3.70	.79	3.96	.82	.705	.497
With supervisor	3.08	.55	3.03	.53	2.87	.76	.917	.403
Parents and relationship	3.19 a	.88	2.63 b	.77	2.22 b	.80	10.658***	.000
Inheritance of property donation	2.89 ab	1.22	2.45 b	.90	3.22 a	1.00	4.160 *	.018
Of social life	3.35 a	.68	3.03 ab	.77	2.74 b	1.05	4.192 *	.018

* p<.05, ** p<.01, *** p<.001, Scheffe's test: a>b



[Fig. 2] Difference of parental relation of Myeongri study and Yookhyo study according to age

[Table 5] Gender, Immediate family correlation Metallurgy according to age myeongrihak and yookhyo

	Gender	Age
Brothers relationship	-.145	-.313**
Friend 〃	-.311**	-.365***
Colleague 〃	-.045	-.324**
Relative 〃	-.020	-.325**
Consignee 〃	.036	-.216*
Child 〃	.043	-.224*
Wealth correspondence	-.091	-.046
Husbandfamily 〃	-	-.229
Spouse 〃	-.059	-.143
Workplace 〃	-.059	.082
Promotion 〃	.034	.127
Of work efficiency	-.022	-.018
Studying the degree of	.198*	-.154
Document acquisition	-.042	.083
With supervisor	-.022	-.148
Parents and relationship	-.067	-.449***
Inheritance of property donation 〃	-.095	.034
Of social life 〃	-.048	-.345***

* p<.05, ** p<.01, *** p<.001
1)Gender: men=1, woman=0

셋째, 성별과 연령은 명리학과 육효학의 육친적 상관관계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성별은 친구와 관계(r=-.311, p<.01)와는 공부의 상관이 있었고, 공부의 정도(r=.198, p<.05)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성별이 남자인 경우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공부의 정도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령은 형제와 관계(r=-.313, p<.01), 친구와 관계(r=-.365, p<.001), 동료와 관계(r=-.324, p<.01), 친인척의 관계(r=-.325, p<.01), 수하인과 관계(r=-.216, p<.05), 자식과 관계(r=-.224, p<.05), 부모와 관계(r=-.449, p<.001),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r=-.345, p<.001)와 공부의 상관이 있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좋은 것을 의미한다.

5. 논의

본 연구는 환경변화도 예측할 경우, 명리학과 육효학을 같이 적용하였을 때 환경변화 예측에 대하여 정확도는 기존의 명리학에서 연구된 [9,12]보다 증가하였다. [12]의 결과에서는 대학교진학률은 유년기부터 청소년기에 선천적 기질을 육친에 적용하였고, 전공선택을 격국, 용신과 일치하는지를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하여 육친의 인성과 비견이 진확률이 높다하였다.

본 연구는 30대에서 60대상으로 확장하여 20가지의 다양한 육친관계에 적용했고, 이에 발생하는 환경변화 예측은 명리학과 육효학을 같이 적용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육친적 환경변화 예측에 높은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공부의 정도가 평균의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문의 정도와 승진의 관계, 직장의 관계, 재물의 왕래는 안정되어 높은 편차를 보였는데 안정된 직장에 의존하여 수입과 관련하였다. 주변환경에 의하여 남편의 가족인 시댁은 평균의 2.22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에서는 직장생활의 경우는 상사와 동료, 부하와 관계는 원만한 관계로 조사되었다. 60대는 직접노동보다는 책임자로서 부하의 관계가 높았고, 30대는 40대 이상 보다 인간관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직종과 직무에 개인적 적성과 신체적 체질의 능률과 효율성[13]은 직장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령에 따른 경우는 형제와 관계는 40대 이하, 60대, 50대 순서로 좋게 나타났다. 친구와 관계, 동료와 관계, 친인척과 관계, 부모와 관계, 사회 생활에 인간관계는 40대이하, 50대, 60대 순서로 좋게 나타났다. 재산의 상속과 증여관계는 낮은 연령에서 좋은 관계로 형성되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동일한 대상과 특성 또는 구성의 차이가 있었다. 예측가능성은 정확성, 신뢰성의 측정방법이 동일한 측정도구를 적용되어 검증-재검증, 상관도, 내적 일관성 등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Cronbach's α계수로 분석하였으며 0.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성이 높다고 한다[15].

결과적으로 자연환경 변화도의 두 학문은 각 문항별로 일반적 특성이 평균과 표준편차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어도 관계의 차이가 실증분석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환경변화도 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폭이 더 높게 나타났고 예측에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6. 결 론

명리학과 육효학의 환경변화도를 예측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리학은 출생하면서 정석화 된 근거로 일생이 명과 운에 의한 운명이고. 육효학은 8괘에서 64괘의 개념을 확대 전개하여 현실화에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명리학과 육효학은 환경변화도 예측기준이 기운의 시·공간에 의하여 목적과 관련이 깊으며, 또한 생성쇠멸은 절기의 순환을 음양오행으로 표현하여 의존하였다.

셋째, 환경변화도 예측방법과 도구 등은 두 학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광범위한 육친의 환경변화를 좁혀 나아갈 수 있었고, 장점이 되어 예측의 정확성은 증대하였다.

예측의 전통문화인 명리학은 고대의 과학적 사고와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길흉화복의 운명을 다루는 술수학이고[16]. 육효학은 점을 치는 자가 사람, 시간, 지, 물, 일을 물움이 된다[14].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보편화가 된지 오래 되었고, 현실적으로 수용되어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변환도 예측실무에서 적용할 경우 유의미한 상관이다. 특히 성별과 연령은 명리학과 육효학의 육친적 상관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상관의미는 성별이 남자인 경우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공부의 정도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와 공부의 상관이 있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명리학과 육효학의 환경변화도를 예측의 정확성은 증대함 이론을 검증을 하였고, 향후 주거환경 예측방안에 보완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Changryeol Yun. 1987. "A Study about Future and Woonqi". Kyunghee Universit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2] Gyucheol Sim. 2002. "A Study on the Origin and Theories of Myongrihak Scienc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Doctoral thesis.

[3] Jaeho Moon. 2008.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ecast of Diseases between Myungri-Hak and YunGi-Hak".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4] Gyeongjin Yu. 2008. "Theoretical study on Yongshin theory of Myeongrihak".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5] Taehyeon Yoon. 1999. "A Study on Kyungbang's Interpretation of Yi-king". Dong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6] Hyeongseok Choi. 2009. "A Study on the "Tojeongbigyeol" (Focused on "Euk hyo jum")". Kong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7] Hongsuk Seong. 2012. "A Study on the 'Bok-seo-jung-jong' (Focused on '18 questions and

answer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8] Jinhee Kim. 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thod of Divination of King Wen and Jing-Fa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1.
[9] Ockhwa Lee. 2011. "A Study on Samhap Modeling of Myungli Science Based on LLM".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10] Jaegon Moon. 1990. "A Study on Yeokhak of Han Dynasty".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5.
[11] Yeongil Lee. 2006. "A Study on Cognition Investigation about Social Trends of Myongri". Korea International Culture University of Graduate. Master's thesis
[12) Seongje Ahn. 2011.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Geokguk, Yongshin and Selection of Major".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Doctoral thesis. 64.
[13] Giseung Kim. 2009. "A Study on Relationship of Career Self-Efficacy and Risk Taking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Myongri Occupational Apriority". Kyonggi University. Master's thesis.
[14] Yeongdae Shin. 2012. "A Study on Applied Yeokhak of 'Juyeok'". Bu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115.
[15) Seoil Chae. 1980. *Social Science Search Methodology*. Bobmunsa. 251.
[16] Gyumoon Cho. 2009. "A Study on Myungri Ideology of Chun-Gang, Won, Su-sung". Daeje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이 옥 화(Ock-Hwa Lee) [정회원]

- 2012년 6월 :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박사

<관심분야>
메인메모리 DBMS 및 모바일컴퓨팅, 문화콘텐츠 개발, 정보보안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이학박사)
- 2012년 5월 ~ 현재 :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교수

<관심분야>
메인메모리 DBMS 및 모바일컴퓨팅, 문화콘텐츠 개발, 정보보안